

다산포럼



남 기 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2025년은 해방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을사늑약으로부터는 120년이 되는 해다.

1875년 운양호 사건 이래 한국과 일본은 150년의 불행한 역사를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20년 전 체결된 을사늑약이 문제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발발 전에 대외 중립을 선언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제국을 공격해 주요 지점을 점거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적 행동이었다. 한일의정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불법 점거는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었다.

한국병합조약은 을사늑약에 기초하고 있었기에 원칙적으로 무효였으나, 60년 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이에 대해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바람에 역사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그 입장 차이는 '제3자 대위변해'로 일본 측 해석에 따라선 윤석열 정부 하에서조차 좁혀지지 못하고 사도광산 문제의 파행에서 고스란히 다시 드러났다.

한편 뉴라이트를 전면 배지시켜 식민지배의 성격에 대한 일본 측 해석에 접근하던 윤석열 정부가 급기야

한일 수교 60년, 역사의 질곡 넘어 평화의 기초로

'반국가세력'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만행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사실은 비상계엄 하에서 겨우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이미 배태된 현실이었다. 한일기본조약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동북아시아의 분단과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온존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 문제와 관련한 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의 관계가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일 수교 60년에 즈음하여 한일 과거사 갈등과 동북아 비평화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일기본조약 제2조, 제3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 동안 조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제2조 문제에 집중해서 전개되었다. 그 성과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2010년의 간 나오토 담화다. 특히 2010년 간 담화가 중요하다.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의 해에,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간 담화는 같은 해 북부터 전개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의 운동이 낳은 성과였다.

이 공동성명은 기본조약 제2조 문제와 관련하여 병합에 이르는 조약과 협정이 불법무효였다는 한국 측 해석을 일본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2015년에 발표된 아베 담화는 이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에 즈음하여 일본에서 다시 이들의 목소리가 조직화되고 있다. 이들은 제2조 문제, 즉 식민지배 불법성과 관련하여 한국 측 해석을 일본이 보다 명확한 형태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제3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한반도의 또 다른 합법 정부임을 확인하고 북일 수교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즈음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제3자 대위변해 해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의 해에 맞이한 탄핵 국면은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한국의 해석을 수용하여 일본의 한국병합이 불법무효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제3조에서 북한이 수교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일본 측 해석에 입각해서 북일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한일 관계가 역사의 질곡을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의 기초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2010년의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은 양국에서 1000명의 서명자를 모아, 간 담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에 즈음하여, 한일의 시민과 지식인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시바 내각을 그에 대응한 행동으로 이끌어낸다면 한일관계는 식민지 역사 청산의 모범 사례이자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의 진지가 될 수 있다.

2025년 한일 양국이 운양호 사건 이래 불행했던 150년의 역사를 종식시킴으로써 명예로운 양자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하면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해 본다.

청춘 특독



양 미 영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지난 여름부터 독립을 시작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계약, 이사를 마치고 월세를 몇 차례 더 내고 하니 벌써 재계약을 코앞에 둔 반년 차 1인 가구다.

집을 나오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살 땐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됐다. 먼저 휴지와 같은 생필품은 당연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 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정책이 생각보다 많고 그 실효성이 좋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집 정리를 하고 나선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광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특정 소득 요건에 부합하면서 부모와 따로 광주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이라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관심, 사회의 변화

이와 같은 월세 지원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세자금대출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통계청에서 지난해에 발간한 '2023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아 1인 가구 및 입차 가구 위주, 낮은 점유 면적 및 높은 공공임대 주택 입주 의향의 특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불안정한 거주지에 머무는 청년들에게 있어 주거 정책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원이 아닌 개인이 정책에 참여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이다. 광주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위원회와 각 구마다 운영하는 청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로 10기를 맞이한 광주 청년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문화·삶의 질, 경제, 홍보로 이뤄진 5개의 부서가 1년 동안 청년정책을 제안한다.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시키며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유출 문제로 골머리

를 앓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하는 등 1년간 정책에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한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두 차례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정책참여위원'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고를 통해 세워진 법과 제도라는 걸 느끼게 되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또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꾸려진 작은 변화와 편의는 공동체를 넘어 지역과 국가를 세우가는 동력이 된다.

지금 내가 사는 도시와 국가가 개개인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더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가 증가하고 한국 사회의 과업과도 같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

기 고



김 행 란 전남농업기술원장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청목(靑木)과 뱀(巳)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 뱀의 해'다. 푸른 뱀은 지혜와 재성을 상징하며,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미래로 이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올 한해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푸른 뱀처럼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희망의 빛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최근 농업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 글로벌 경제 불 안정,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 안보 위기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는 곧 기회의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인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결합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2025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농업 환경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 서리와 우박 피해, 집중호우 등 빈번한 기상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농업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작물 안정 생산, AI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 적응성 신품종 개발과 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가공 기술 개발 및 소득화, 자유농업 활성화 등을 올해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제는 농업인들도 농업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정보를 습득해 한발 빨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농업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월 말까지 농업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재배기술과 변화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안내 제공 등 새해 영농설계의 첫 단추를 채우는 귀중한 자리다.

이런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기술·농촌자원·농업경영 3개 분야로 추진되

며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친환경 등 농업인 수요에 맞춰 품목별 핵심적인 재배기술과 신작목 등을 다루게 된다.

또 새롭게 변화하는 농정 이슈와 2025년 핵심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병해충 예방, 온열질환 예방,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한 품목별 생산비 절감 기술, 사·군별 특화품목 핵심 재배 기술 등 농사의 기본이 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 왕우렁이 피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했다. 이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는 지역별 주요 병해충 발생 진단 및 방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 교육을 강화해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우리 농업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전남 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푸른 뱀의 지혜와 희망을 품고 올 한해 농업인 모두가 풍요로운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

社說

초유의 법원 습격...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

지난 19일 새벽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폭도들의 법원 습격은 초유의 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고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했다. 영장을 발부환 판사를 찾겠다며 7층 영장전담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법원의 당직 근무자들은 폭도들을 피해 옥상으로 피신해야 했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영상을 지켜본 국민들은 폭도들의 난동에 공포감마저 느꼈다.

미처 없었던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90명을 체포해 66명을 구속하기로 했다. 폭도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 하도록 선동한 배후세력을 발본색원 하는

일이다.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비상계엄으로 탄핵을 자초해 놓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극우 지지자들을 자극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매한 태도로 사태를 방관했고 윤상헌 의원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불복을 유도했다.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 있다'는 말을 운운한 전광훈 목사도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다.

돈벌이를 위해 자국적인 영상과 언행으로 폭도들을 자극한 극우 유투버들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은 탄핵 정국 내내 현장에서 극우 지지자들의 난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 한 번일지라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만큼 심해지는 진영 대결 속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무너진다면 사회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

호남권역 국회도서관 분관 광주에만 곳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보유한 광주시가 호남권역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지로 안성 맞춤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도서관 분관이 광주에 들어설 경우 수도권에 비해 뒤떨어진 지역의 지식 문화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라는 기존의 상징성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배출한 문학의 도시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지로 적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최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회도서관 분관은 지식정보의 지방 확산을 통한 지식문화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국회도서관 분관은 광주시가 최적지로 판단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번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 규모를 2022년 개관한 국회 부산도서관과 비슷한 1만4000㎡로 산정했으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938억5868만원으로 추산했다.

국회도서관 분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자원을 지방 거점도시에서 공유·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보유한 광주가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저장하고 생산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만큼 미술관·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갖춰야 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국회도서관 분관과 연계할 경우 지식 정보 교류 및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25년은 경이로운 해였다. 24세였던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1901-1976)는 7월에 쾨펜 알레르기 때문에 휴양차 북해 외딴섬 헬골란트(Helgoland)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고전물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양자론(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를 '행렬역학'으로 체계화해 논문으로 발표했고, 7년 뒤 1932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오스트리아 태생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1887-1961) 또한

양자역학 100주년

같은 해 크리스마스 휴가 때 떠난 스위스 아로사에서 원자속 전자를 파동으로 설명하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착안했고 이듬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1933년 하이젠베르크와 마찬가지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선도적인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원자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을 때 미술계에서는 초현실주의 회화가 탄생한다. 벨기에 출신 르네 마그리트(1898-1967)는 1925년께부터 상상을 뒤엎는 초현실주의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이미지의 배반'과 '연인들', '빛의 제국' 연작과 같은 작품들을 남겼다. '미술관에 과학을 보는 물리학자' 김상욱 경희대 교수는 '뉴턴의 아틀리에'(2020년)에서 "1920년대 유럽이라는 시공간은 양자역학과 초현실주의를 동시에 탄생시켰다"면서 하나의 장면 속에 낮과 밤이 공존하는 작품 '빛의 제국'을 '양자 중첩' 이론으로 해석한다.

양자역학(量子力學)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UN은 올해를 '세계 양자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터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초전도를 이 파동으로 설명하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착안했고 이듬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1933년 하이젠베르크와 마찬가지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선도적인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원자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을 때 미술계에서는 초현실주의 회화가 탄생한다. 벨기에 출신 르네 마그리트(1898-1967)는 1925년께부터 상상을 뒤엎는 초현실주의 작품을 그리기

/송기동 예방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disclaim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